



감 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내 용 문 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17호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3. 10.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김태후·민선형·임준형·유찬희

요약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

-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주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함. 반면, 농업소득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 및 경영비 상승으로 2022년 크게 감소하여, 동기간 연평균 7.4% 감소함.
- 2013~2017년 패널과 2018~2022년 패널 비교 시 평균 농업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럼에도 2022년 농업소득의 큰 폭의 하락은 농업소득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농가 유형별로 소득 증가율 상이

- 2018~2022년 농가소득 증가율은 청장년 소농(연평균 7.2%)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은 고령 소농(연평균 5.2%), 고령 중대농(연평균 4.6%)이 차지함. 반면,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은(연평균 -2.3%) 감소함.
- 2013~2017년 패널 대비 2018~2022년 패널에서 청장년 농가보다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견인한 소득원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었음.

공익직불제 도입, 각종 보조금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 감소

- 역진 단가 체계로 설계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증가로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이 완화되었음.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

- 후계농과 창업농의 영농 기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임.

농업소득과 청년농 소득의 증대 및 안정화, 청년농 육성 및 유입, 직불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농업소득 감소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영농체계 구축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구되어야 함.
- 청장년 소농의 안정적인 농업 자본 축적을 위한 농업보조금 지급기준 검토와 소득 변동성이 큰 청장년 중대농을 위한 경영위험관리 교육이 필요함.
- 농가 고령화 심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익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게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01

2018~2022년 농가경제 동향¹⁾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 이전소득(11.4%)과 농외소득(3.2%)이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7.4%)

- 지난 5년(2018~2022)간 농가소득 변화 실태를 농가 유형 및 원천별로 파악하고 농가소득 변화를 분석함.
 - 분석 기간은 최근 농가경제 패널 유지 기간인 2018~2022년임. 농가를 표준영농규모 2ha, 경영주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2018~2022년은 거대재해(2019, 2020), 코로나19(2020~2022), 러-우 전쟁(2022)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고조 등 대내외 여건이 농업 부문에 불리했음에도 농가소득은 증가하였음.
 - 농가소득은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증가해 연평균 2.3% 증가하였으나 지난 패널인 2013~2017년 2.6%에 비해 소폭 하락함.
 - 2022년 농가소득은 2018년보다 9.7% 증가한 4,615만 원을 기록하였음. 이전소득 증가(연평균 11.4%, 2022년 이전소득은 2018년 대비 54.1%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를 이끌었음.
 - 농외소득 역시 연평균 3.2%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를 일정 부분 견인하였음.
- 지난 5년간 농업소득은 거대재해 발생, 코로나19, 글로벌 복합위기 등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년 패널(2013~2017)의 평균 농업소득보다 많았으나 농업소득 변동성은 심화되었음.
 - 2019, 2020년 연이은 거대재해와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수입 감소를 보전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은 소비 활황으로 농업 총수입은 증가세를 보여 농업소득 증가를 이끌었음.
 - 하지만 2022년 쌀과 한우의 가격 폭락에 이어 국제유가 및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여 농업 경영비가 상승한 결과,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줄었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대비 2022년 10.2%p 하락하였음(2018년: 30.7%, 2022년: 20.6%).
 - 2018~2022년 패널 평균 농업소득은 1,149만 원으로 2013~2017년 패널의 1,034만 원보다 많았으나, 농업소득 변동성도 확대되었음(변이계수: 2013~2017년 패널 0.05, 2018~2022년 패널 0.14, 약 2.7배 증가).

1) 모든 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임.

표 1 농가소득 동향(2018~2022년)

단위: 만 원, %, (%p)

소득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변화율(% , %p)	
						연평균	'22/'18
농가소득	4,207	4,118	4,503	4,776	4,615	2.3	9.7
농업소득 (농업소득/농가소득)	1,292 (30.7)	1,026 (24.9)	1,182 (26.2)	1,296 (27.1)	949 (20.6)	-7.4 (0.3%p)	-26.6 (-10.2%p)
농업 총수입	3,576	3,444	3,603	3,719	3,460	-0.8	-3.2
농업 경영비 (경영비/총수입)	2,284 (63.9)	2,418 (70.2)	2,421 (67.2)	2,423 (65.1)	2,512 (72.6)	2.4 (2.2%p)	10.0 (8.7%p)
농외소득 (농외소득/농가소득)	1,695 (40.3)	1,733 (42.1)	1,661 (36.9)	1,788 (37.4)	1,920 (41.6)	3.2 (0.3%p)	13.3 (1.3%p)
겸업 소득	540	583	493	551	630	3.9	16.6
사업외소득	1,155	1,150	1,168	1,238	1,291	2.8	11.7
이전소득 (이전소득/농가소득)	989 (23.5)	1,123 (27.3)	1,426 (31.7)	1,481 (31.0)	1,525 (33.0)	11.4 (2.4%p)	54.1 (9.5%p)
공적 보조금	926	1,057	1,355	1,402	1,442	11.7	55.6
농업보조금	222	269	376	370	388	14.9	74.6
기타 공적 보조금	704	788	980	1,031	1,054	10.6	49.7
사적 보조금	63	66	71	79	83	7.1	31.8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농가소득)	230 (5.5)	236 (5.7)	234 (5.2)	211 (4.4)	222 (4.8)	-0.9 (-0.17%p)	-3.5 (-0.7%p)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외소득은 2020년 이후 증가하여 2021년 1,788만 원, 2022년 1,92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6%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 농외소득 중 농업 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겸업 소득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90만 원 감소 하였으나 2021년, 2022년 매년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3.9% 증가했음. 따라서 2018년 대비 2022년 16.6%로 증가한 630만 원을 기록하였음.
 - 주로 임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외소득은 겸업 소득보다 증가세는 낮으나 연평균 2.8%씩 꾸준히 증가 하였고 2022년 1,291만 원을 기록하였음(2018년 대비 11.8% 증가). 겸업 소득보다 2배 이상 많아 농외소득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농가 고령화에 따른 공적 연금소득 증가와 공익직불제 실시 등으로 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 공적 보조금은 연평균 11.7%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크며 기초연금과 국민(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농가 고령인구의 증가도 주요인 중 하나임.
 - 공적 보조금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019년부터 농업소득을 제치고 원천소득 중 농외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02



농가 유형별 소득 실태²⁾

2.1. 농가 유형화 및 유형별 분포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개 유형으로 분류·분석

- 농가 전체에 대한 평균적 접근보다는 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주의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농가 유형화를 실시하였음.
- 김미복 외(2016), 유찬희 외(2018)에서 활용한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의 영농규모를 판단하였음.³⁾
 - 표준영농규모는 영농형태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 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임(김미복 외, 2016).

표 2 농가 유형 분류

농가 유형	기준
청장년 소농(Small Young: SY)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청장년 중대농(Large Young: LY)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고령 소농(Small Old: SO)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 중대농(Large Old: LO)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주: 표준영농규모는 경지면적+(농업용 고정자산/당해 평균 농지 가격)을 의미함.
자료: 유찬희 외(2018).

전체 농가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고령 소농이며, 청장년 소농, 고령 중대농, 청장년 중대농 순

- 고령농 비율이 점증하는 추세이고, 그중 고령 소농은 2022년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음.⁴⁾
- 고령 소농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50%대를 유지하다 2022년 60%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고령 중대농은 비율은 낮지만 증가하고 있음.
 - 고령 소농 비율은 2013년 47.3%에서 2022년 63.5%로 16.2%p 증가하였고, 고령 중대농 비율은 2013년 8.8%에서 12.4%로 3.6%p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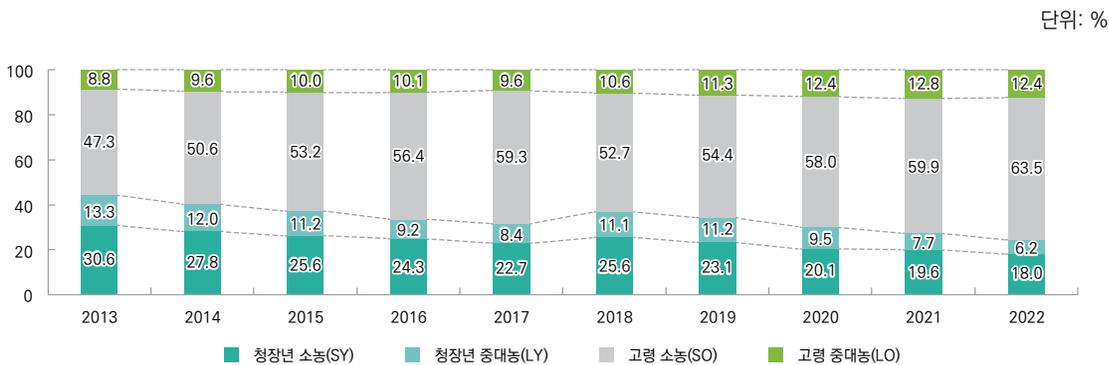
2) 본 분석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2인 농가 이상 전국 가중값을 적용하여 집계한 결과임.

3) 표준영농규모는 농경지를 제외한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 대식물, 대동물 등)의 금액을 경지면적으로 환산하고 이를 농가가 보유한 경지면적과 합산하여 산출함.

4) 해당 수치는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농업총조사의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49.8%)과 다름.

- 반면 청장년 소농과 중대농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음.
 - 청장년 소농은 고령 소농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2013년 30.6%에서 2022년 18.0%로 12.6%p 감소하였음.
 - 청장년 중대농은 2013~2017년 동안에는 고령 중대농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10% 미만으로 줄면서 가장 낮아졌음.

그림 1 연도별·유형별 농가 수 비율 변화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형별 농가 수와 비율을 집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13~2022년 동안 연평균 농가 수 감소율이 가장 큰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이고,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중대농이었음.
 -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 및 중대농 비율은 각각 연평균 7.6%, 10% 감소한 반면, 고령 소농 및 중대농 비율은 각각 1.3%, 1.7% 증가하였음.
 - 청장년 소농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2013~2017년 기간보다 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감률과 증감 폭이 더 크게 나타나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최근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 고령 중대농 수는 2013~2017년 동안 소폭 감소했다가 2018~2022년 다시 증가하였음.

표 3 기간별·유형별 농가 수 증감률

단위: %

기간	증감률 및 변화율	청장년 소농 (SY)	청장년 중대농 (LY)	고령 소농 (SO)	고령 중대농 (LO)	전체
(전체) 2013~2022년	연평균 증감률	-7.6	-10.0	1.3	1.7	-2.0
	'22/'13 변화율	-51.1	-61.1	12.0	16.8	-16.6
(기간1) 2013~2017년	연평균 증감률	-9.9	-13.4	2.8	-0.9	-2.9
	'17/'13 변화율	-34.2	-43.9	11.6	-3.4	-11.1
(기간2) 2018~2022년	연평균 증감률	-9.2	-14.2	3.9	3.1	-0.8
	'22/'18 변화율	-31.9	-45.8	16.7	13.2	-3.0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형별 농가 수와 증감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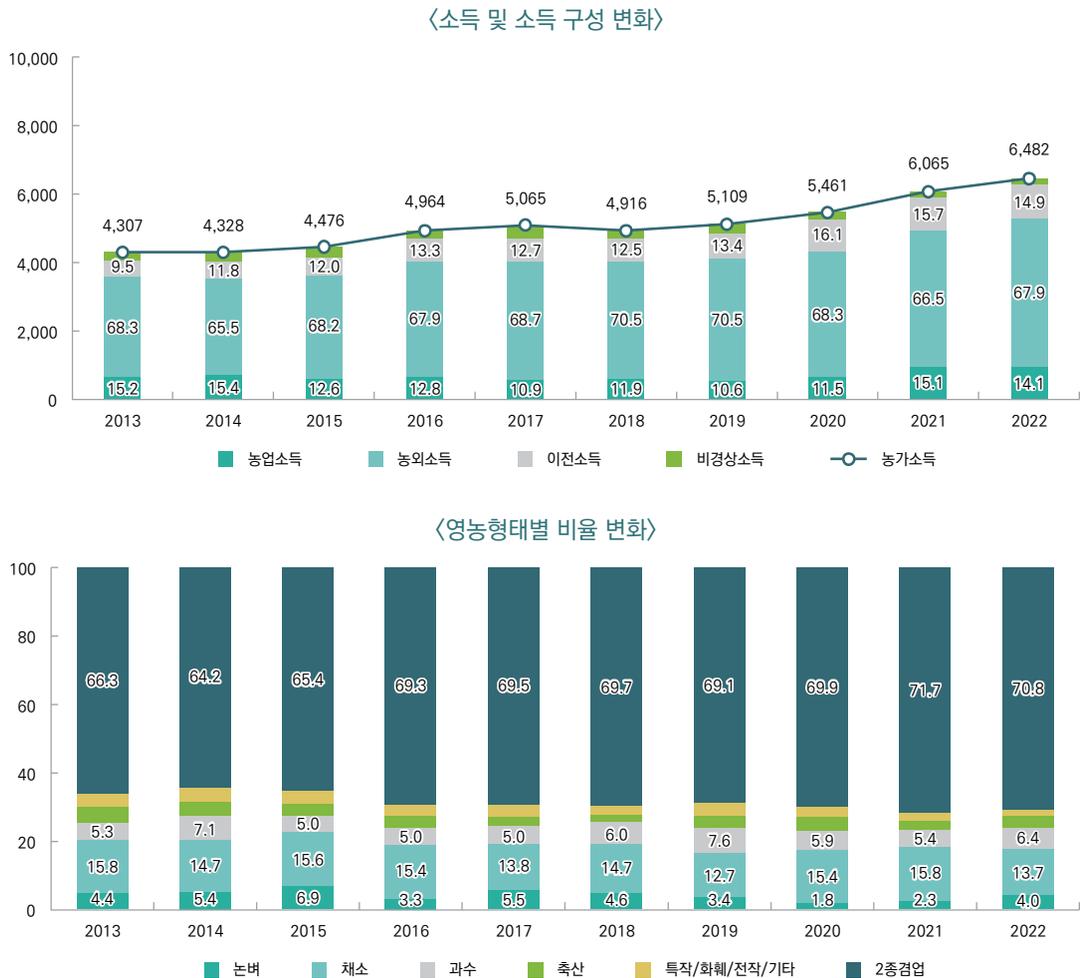
2.2. 유형별 농가소득 특징⁵⁾

청장년 소농은 농외소득 비율이 높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으며 소득 변동성이 큰 편

- 청장년 소농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5.5~70.5%로 가장 높았음.
 - 이는 청장년 소농 집단의 대부분이 2종 겸업농가로서 영농 활동보다는 농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임.
 - 청장년 소농 집단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영농 활동 형태는 겸업 농가이며(64.2~71.7%), 채소 농가(12.7~15.8%)가 뒤를 이었음.

그림 2 청장년 소농 소득 및 영농형태 비율 변화

단위: 만 원, %



주 1) 막대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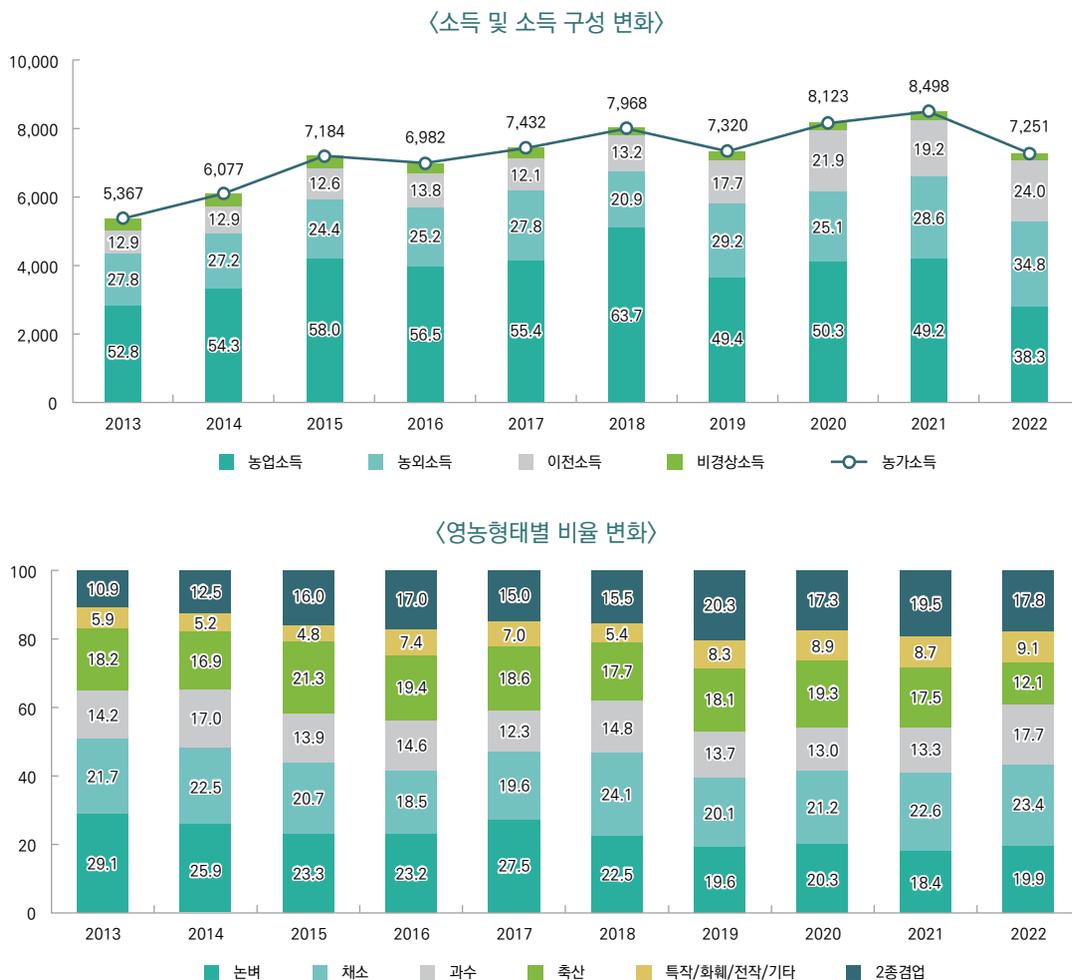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5) 본 절에서는 농가 유형별 소득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설명하겠음.

-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농외소득, 이전소득 순서로 소득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농업소득 비율은 2013~2017년에는 안정적으로 50%대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8~2022년 동안은 38.3~63.7%로 변동성이 커졌음.
- 청장년 중대농은 소득이 가장 많은 유형이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소득 변동성이 컸음.
 - 이는 청장년 중대농 중 비교적 농업 수입 변동성이 큰 채소, 과수 농가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청장년 중대농의 영농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과거 20%대를 유지하던 논벼 농가 비율은 2019년 이후 10% 대로 감소한 반면, 2종 겸업 및 채소 농가 비율이 증가하였음.

그림 3 청장년 중대농 소득 및 영농형태 비율 변화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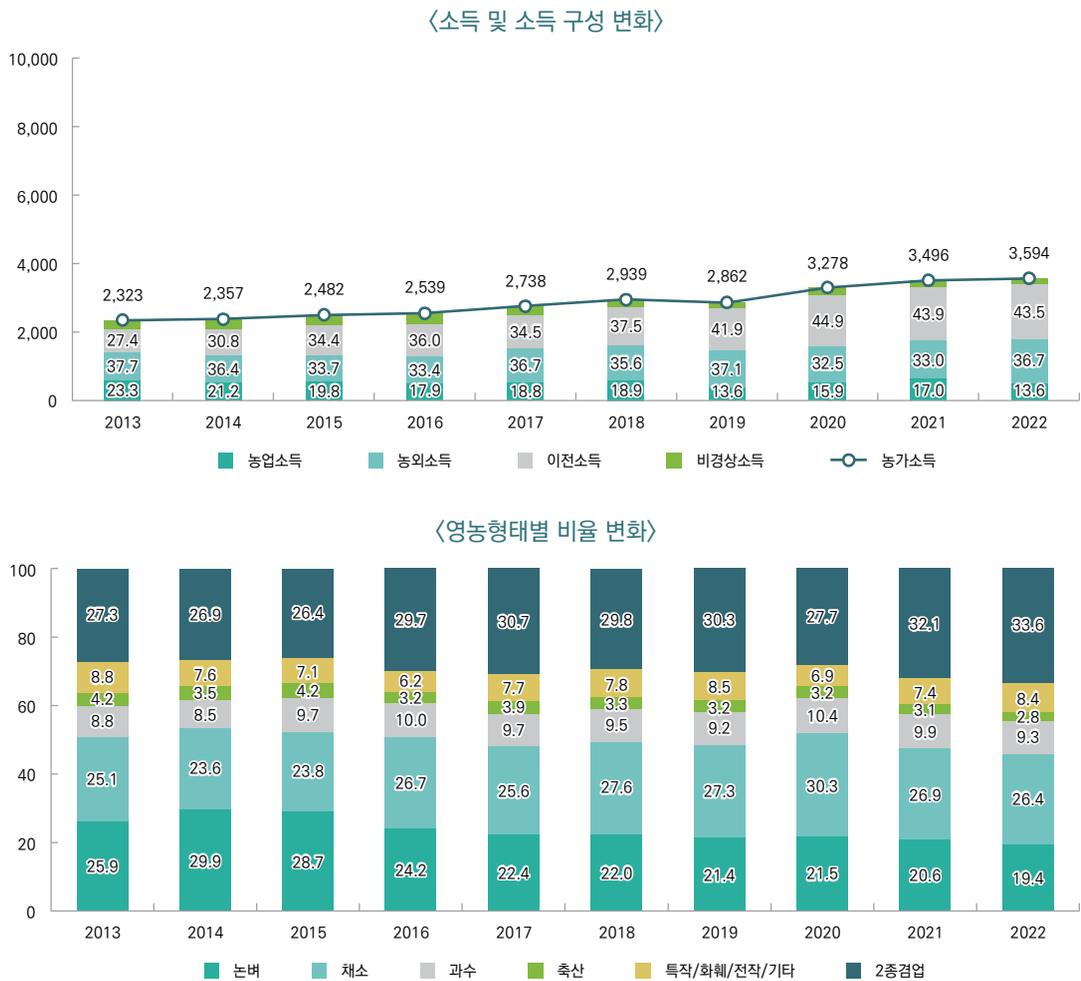
주 1) 막대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주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고령 소농은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고,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지만 소득 변동성은 작은 편

- 고령 소농 소득은 느리게나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소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고령 소농의 원천별 소득을 살펴보면, 2013~2017년 동안은 농외소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 이후 이전소득 비율이 농외소득을 앞질렀으며, 2019년 이후에는 40% 이상을 차지했음.

그림 4 고령 소농 소득 및 영농형태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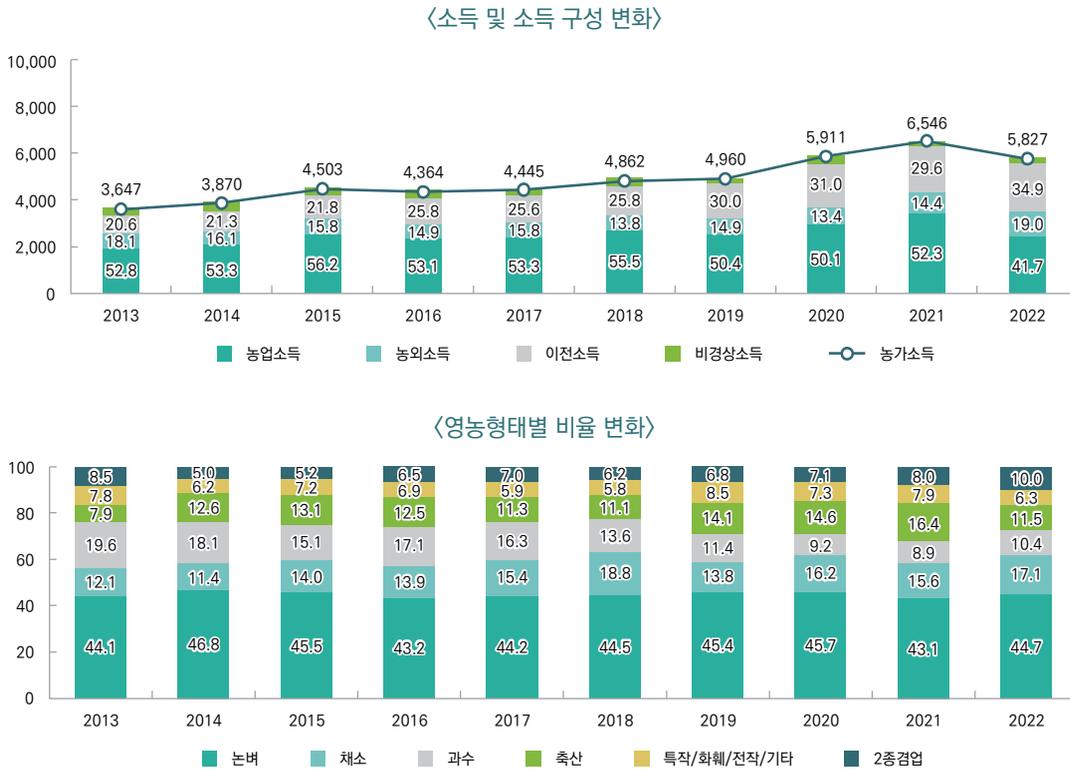
단위: 만 원, %



주 1) 막대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주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그림 5 고령 중대농 소득 및 영농형태 비율 변화

단위: 만 원, %



주 1) 막대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고령 중대농은 청장년 중대농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농외소득 비율이 낮고 이전소득 비율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음.
 - 2022년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소득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율도 낮아졌지만, 고령 중대농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율(41.7~56.2%)은 여전히 가장 높았음. 농업보조금, 노령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의 비율과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음.
 - 농외소득은 큰 변동 없이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청장년 중대농과 비교했을 경우 절반 수준으로 고령농의 겸업 및 사업 외 활동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 청장년 중대농과 달리 영농형태가 논벼에 집중되어 있었음.
 - 고령 중대농의 영농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논벼 농가의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청년 중대농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고령 중대농은 논벼 집중도가 높아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음.

2.3.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변화

모든 유형에서 2018~2022년 농가소득은 2013~2017년 대비 증가, 청장년 농가보다는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으며, 소득 증가를 견인한 소득원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 2013~2017년 대비 2018~2022년 농가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중대농(34.9%)이며, 그다음은 고령 소농(30.0%), 청장년 소농(21.2%), 청장년 중대농(18.5%)이었음.
 - 고령 중대농은 평균 소득증가분(1,455만 원)과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은 농가 유형이었음.
 - 청장년 중대농의 평균 소득 증가분(1,224만 원)은 크나,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 낮았음.
- (청장년 소농) 2018~2022년 평균 소득은 5,607만 원으로 2013~2017년 평균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가 주요인이었음.
 - 다만, 청장년 소농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음. 청장년 소농은 농업소득이 농외소득 보다 작은 2종 겸업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업보조금 지급기준인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청장년 중대농) 2018~2022년 평균 소득은 7,832만 원으로 2013~2017년 평균보다 18.5% 증가하였음.
 - 청장년 소농과 마찬가지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가 주된 소득 증가의 원인이지만, 소농보다 더 큰 폭으로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받았음.
 - 이전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결과라고 해석됨.
 - 농업이 주업인 유형임에도 농업소득 증가분이 작은 이유는 2022년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하여 2018~2022년 평균 농업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고령 소농) 2018~2022년 평균 소득은 3,234만 원으로 2013~2017년 평균 대비 30.0% 증가하였음. 이는 이전소득, 특히 기타 공적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음.
 - 2018~2022년 평균 이전소득 증가액은 559만 원으로 전체 소득 증가액(746만 원)의 74.9%를 차지했음.
 - 이전소득 중에서도 직불제 개편에 따른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농업보조금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83만 원, 94.3%),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원은 기타 공적 보조금(460만 원, 71.3%)이었음.
 - 이는 2018~2022년 동안 고령 농가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초노령연금⁶⁾과 같이 정부 및 공공단체의 공적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고령 중대농)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전소득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유형과 달리 농업소득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음.

6) 국민연금 수급권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연령은 만 65세 이상임.

- 이전소득 중 기타 공적 보조금의 증가액이 큰 고령 소농과 달리, 고령 중대농의 소득 증가에는 농업 보조금 기여율이 가장 높았음.
- 고령 중대농은 논벼 농가의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서 해당 유형의 농업소득 증가는 2013~2017년 대비 2018~2022년 평균 쌀 가격의 상승 때문으로 판단됨.⁷⁾

표 4 유형별 소득 변화(2013~2022년)

단위: 만 원, %

기간	소득원	전체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5개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5개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5개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5개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5개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2013~2017년	농가소득	3,643	2.6	4,628	4.1	6,608	8.5	2,488	4.2	4,166	5.1
	농업소득	1,034	0.0	614	-4.1	3,673	9.8	501	-1.2	2,241	5.3
	- 농업 총수입	3,167	-0.1	2,216	0.4	11,354	5.7	1,398	1.8	6,498	6.9
	- 경영비	2,133	-0.1	1,602	2.3	7,681	4.0	897	3.6	4,257	7.8
	농외소득	1,539	0.9	3,136	4.3	1,744	8.5	885	3.5	669	1.6
	- 겸업 소득	399	1.3	747	3.7	601	7.6	229	8.1	176	-1.4
	- 사업외소득	1,141	0.7	2,388	4.5	1,143	8.9	655	2.1	493	2.8
	이전소득	765	11.1	552	11.8	849	6.8	815	10.4	963	11.0
	- 공적 보조금	700	12.2	494	14.2	827	7.0	733	11.6	924	11.8
	• 농업보조금	165	3.5	93	14.5	526	3.8	88	4.2	392	8.2
• 기타 공적 보조금	535	15.1	402	14.1	302	12.4	645	12.7	532	14.4	
2018~2022년	농가소득	4,444	2.3	5,607	7.2	7,832	-2.3	3,234	5.2	5,621	4.6
	농업소득	1,149	-7.4	718	11.9	3,950	-14.0	510	-3.1	2,803	-2.6
	- 농업 총수입	3,560	-0.8	2,438	10.8	13,484	-1.3	1,463	2.0	8,120	6.2
	- 경영비	2,411	2.4	1,721	10.4	9,531	4.1	953	4.7	5,317	10.8
	농외소득	1,759	3.2	3,846	6.1	2,159	10.9	1,129	5.9	849	13.3
	- 겸업 소득	559	3.9	1,153	7.6	1,060	9.6	310	7.6	340	16.8
	- 사업외소득	1,200	2.8	2,692	5.4	1,102	12.4	820	5.3	509	11.2
	이전소득	1,309	11.4	819	11.8	1,499	13.4	1,374	9.1	1,710	12.8
	- 공적 보조금	1,236	11.7	783	11.1	1,489	13.9	1,276	9.7	1,652	13.1
	• 농업보조금	325	14.9	184	19.6	1,052	15.3	171	20.2	775	17.2
• 기타 공적 보조금	911	10.6	599	8.7	437	10.5	1,105	8.2	876	9.7	
두 기간 평균 증감분 (증감률)	농가소득	801	22.0	979	21.2	1,224	18.5	746	30.0	1,455	34.9
	농업소득	115	11.1	104	16.9	277	7.5	9	1.8	562	25.1
	- 농업 총수입	393	12.4	222	10.0	2,130	18.8	65	4.6	1,622	25.0
	- 경영비	278	13.0	119	7.4	1,850	24.1	56	6.2	1,060	24.9
	농외소득	220	14.3	710	22.6	415	23.8	244	27.6	180	26.9
	- 겸업 소득	160	40.1	406	54.4	459	76.4	81	35.4	164	93.2
	- 사업외소득	59	5.2	304	12.7	-41	-3.6	165	25.2	16	3.2
	이전소득	544	71.1	267	48.4	650	76.6	559	68.6	747	77.6
	- 공적 보조금	536	76.6	289	58.5	662	80.0	543	74.1	728	78.8
	• 농업보조금	160	97.0	91	97.8	526	100.0	83	94.3	383	97.7
• 기타 공적 보조금	376	70.3	197	49.0	135	44.7	460	71.3	344	64.7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7) 2018~2022년 평균 수확기 쌀 가격은 20만 884원/80kg으로 2013~2017년 가격(15만 5,561원/80kg)보다 28.7% 상승하였음.

03



농가소득 불평등 실태⁸⁾

3.1. 농가소득 불평등도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완화 추세이며,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주요인은 농외소득과 농업소득

- 농가 유형별 소득분포의 양극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추정하였음.
 - 어떤 소득이 소득불평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샤플리 값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추정함.⁹⁾ 본 분석에서는 소득원천별 비율을 고려한 기여도 계산을 위해 평균 샤플리 값 분해 방법을 활용함.¹⁰⁾
- 소득불평등도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며,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컸음.
 - 지니계수는 2013년 0.408에서 2022년 0.395로 감소하였음.
 -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불평등도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컸음. 소득원별 불평등도 수준은 농업소득이 가장 높았음.
-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에 힘입어 과거 대비 소득 불평등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농업소득 감소 때문에 소폭 증가했음,
 - 과거 0.4 이상¹¹⁾을 유지하던 불평등도는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2020년 0.4 이하로 감소했음.
 - 이전소득은 다른 소득원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는 감소하고 비율은 증가하여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했음. 이는 역진적 단가로 설계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각종 보조금 등이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한 결과라고 판단됨.
 - 2022년에는 농업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소득 편차가 커지면서 전체 소득 불평등도도 상승했음.

8) 본 분석에서는 농가소득 전국승수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 분석을 수행함.

9) 샤플리 값 분해 방법은 기존 원천별 소득 합산 순서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는(순서 의존성) Lerman-Yitzhaki 방식과 달리 순서 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임(허등용, 2018)

10) 자세한 내용은 임병인·전승훈(2005)을 참고 바람.

11) 지니계수의 값이 0.4가 넘으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다고 간주함(우병준 외, 2017).

표 5 연도별 농가소득 불평등도 및 소득원천별 기여도

단위: %

연도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13	불평등지수	0.408	0.70	0.65	0.51	0.71
	기여도	(100.0)	(35.4)	(47.6)	(9.2)	(7.8)
2014	불평등지수	0.420	0.73	0.67	0.49	0.68
	기여도	(100.0)	(37.9)	(45.2)	(10.0)	(6.9)
2015	불평등지수	0.415	0.75	0.67	0.45	0.66
	기여도	(100.0)	(41.0)	(42.8)	(9.9)	(6.3)
2016	불평등지수	0.409	0.76	0.68	0.45	0.68
	기여도	(100.0)	(37.2)	(44.6)	(11.5)	(6.7)
2017	불평등지수	0.408	0.76	0.68	0.44	0.64
	기여도	(100.0)	(36.6)	(46.9)	(10.8)	(5.7)
2018	불평등지수	0.428	0.75	0.70	0.45	0.68
	기여도	(100.0)	(40.0)	(44.4)	(11.4)	(4.2)
2019	불평등지수	0.420	0.77	0.70	0.43	0.66
	기여도	(100.0)	(35.0)	(47.3)	(13.2)	(4.5)
2020	불평등지수	0.396	0.76	0.71	0.37	0.65
	기여도	(100.0)	(38.8)	(42.9)	(14.3)	(4.0)
2021	불평등지수	0.389	0.75	0.70	0.36	0.66
	기여도	(100.0)	(39.4)	(43.7)	(13.5)	(3.4)
2022	불평등지수	0.395	0.79	0.70	0.36	0.63
	기여도	(100.0)	(33.2)	(49.3)	(14.2)	(3.3)

주 1) 농가소득 구성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를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가소득을 재집계함.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3) 지니계수 기여도는 평균 샐리리 값 분해를 이용하여 계산됨.¹²⁾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2. 농가 유형별 소득불평등도¹³⁾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유형 내보다 유형 간 불평등도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

- 202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소득불평등도 기여도는 유형 내(20%대)보다 유형 간(40%대)에서 컸음. 이는 농가소득 불평등은 동일한 유형 안에서의 소득 격차보다 유형 간 소득 차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3~2022년 동안 유형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유형일수록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져 소득 유형 간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

12) 평균 샐리리 값 분해(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로 모든 사람에게 여타 원천들의 값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부여한 후 원천별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원천별 점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함(이성재·이우진, 2017).

13) 농가 유형별 소득불평등도 분석에 사용된 농가소득은 구성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를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재집계한 농가소득임.

- 2022년에는 고소득 그룹(청장년 및 고령 중대농)의 소득 감소와 저소득 그룹(청장년 및 고령 소농)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져 유형 간 소득 불평등도가 40% 이하로 감소하였음.
-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소득 집단(청장년 및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전체 소득도 줄어들었음. 저소득 집단(청장년 및 고령 소농)은 농외 및 이전소득 증가로 소득이 증가하였음.
-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큰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이지만,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이었음.
 - 2013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평등도는 0.4 이상으로 다른 유형보다 컸음.
 - 이는 청년농업인 중에서도 후계농은 영농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거나 재배작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 창업농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석다숨 외, 2022).
 -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수준은 0.4 이하로 낮았지만, 기여도는 가장 컸음. 이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소득에서 해당 유형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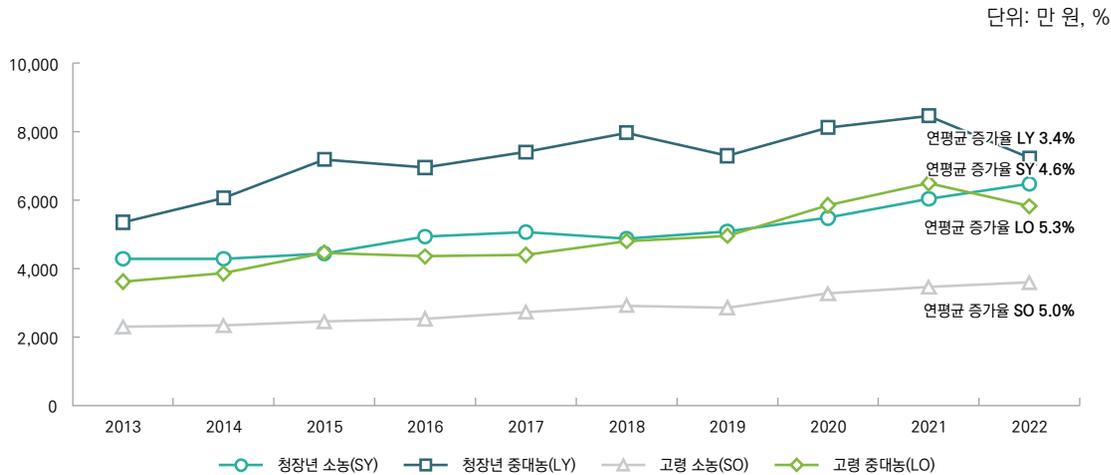
표 6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불평등도 기여도

연도	분위별	유형 지니 계수	인구 비율	소득 비율	절대적 기여			지니 계수 (A+B+C)	상대적 기여(%)		
					유형 내 (A)	유형 간 (B)	잔차항 (C)		유형 내	유형 간	잔차항
2013	청장년 소농	0.360	30.6	38.1	0.042	0.181	0.116	0.408	10.3	44.4	28.4
	청장년 중대농	0.369	13.3	21.0					2.5		
	고령 소농	0.370	47.3	31.7					13.6		
	고령 중대농	0.361	8.8	9.3					0.7		
2017	청장년 소농	0.349	22.7	30.2	0.024	0.191	0.095	0.408	5.9	46.9	23.3
	청장년 중대농	0.405	8.4	16.3					1.4		
	고령 소농	0.353	59.3	42.3					21.7		
	고령 중대농	0.348	9.6	11.2					0.9		
2018	청장년 소농	0.367	25.6	29.9	0.028	0.193	0.116	0.423	6.7	45.7	27.5
	청장년 중대농	0.428	11.1	21.4					2.4		
	고령 소농	0.367	52.7	36.5					16.7		
	고령 중대농	0.348	10.6	12.2					1.1		
2022	청장년 소농	0.343	18.0	24.7	0.015	0.155	0.107	0.396	3.9	39.2	27.0
	청장년 중대농	0.428	6.2	10.4					0.7		
	고령 소농	0.349	63.5	48.8					27.3		
	고령 중대농	0.388	12.4	16.1					2.0		

주 1) 유형 내 절대적 기여도는 유형별 지니계수에 인구비율과 소득비율을 곱한 값임.
 2) 상대적 기여도는 전체 소득불평등도에서 유형별 절대적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3) 잔차항은 유형 간 소득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유형 내 및 유형 간 지니계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4) 유형별 상대적 기여도는 유형 자체의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에 인구 비율과 소득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절대적 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그림 6 연도별·유형별 농가소득 추이



주: 전국 승수 기준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3. 농가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실태¹⁵⁾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이후 낮아졌지만, 2022년 농업소득 감소 때문에 상승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농가 중 빈곤 위험에 처한 농가(이하 빈곤 농가)의 비율'을 의미함.
 - 본 고에서는 '농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농가를 빈곤 농가로 정의하고, 상대적 빈곤율 실태를 분석하였음.¹⁶⁾
- 전체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지만, 2022년 농업소득 감소로 다시 상승했음.
 - 전체 농가 중 빈곤 농가 비율은 2015년 9.0%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6.4%로 하락했음. 이는 2020년은 재난지원금 지원, 소농직불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빈곤 농가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2022년에는 농업소득의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였음.¹⁷⁾
- 2019년까지는 고령 소농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 이후 하락하였음.
 - 2015~2019년 동안 고령 소농의 상대적 빈곤율(10.9~13.2%)은 전체 빈곤율(9.0~11.1%)보다 높았음. 2020~2021년 동안 5.8~6.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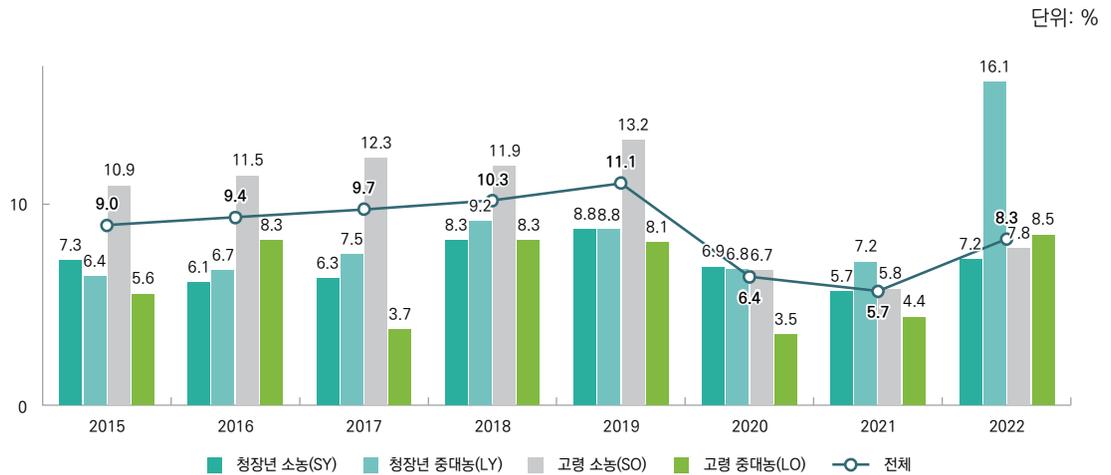
15)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상대적 빈곤율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대상 기간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된 2015년부터로 설정함.

16) 현재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므로, 해당 기준을 빈곤 농가 정의에 활용함.

17) 2021년 빈곤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12만 원으로 농외소득(203만 원)과 이전소득(864만 원)의 합보다 농업소득(-1,172만 원)이 감소하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2년(농가소득 -220만 원, 농업소득 -1,636만 원, 농외소득 228만 원, 이전소득 1,061만 원) 더욱 심화되었음.

- 2020년은 모든 유형의 빈곤율이 감소했던 해로써 특히 고령 중대농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이는 고령 중대농 빈곤 농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논벼 농가의 소득이¹⁸⁾ 판매가격 상승, 변동 직불금 지급 등으로 증가하면서 빈곤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임.¹⁹⁾

그림 7 농가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2015~2022년)



- 주 1) 실선 수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해당 연도의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함.
 2) 빈곤 농가란, 농가소득이 각 연도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농가를 의미함.
 3)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유형별 농가 수에서 빈곤선(중위소득 30% 이하)인 농가 수 비율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에는 모든 농가 유형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하였음.

- 특히, 2022년 청장년 중대농의 상대적 빈곤율은 16.1%로 2021년(7.2%)보다 가장 큰 폭(8.9%p)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가 전체 빈곤율(8.3%)보다도 7.8%p 큰 수치임.²⁰⁾

* 청장년 중대농의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해당 유형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전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음.

- 청장년 소농과 고령 소농은 평균적인 농업소득 의존도는 낮지만 유형 내 소득이 낮은 농가들 대부분은 농업의존도가 높았음. 이러한 저소득 농가가 농업소득 하락으로 인해 빈곤 농가로 분류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했음.

18) 2019년 기준 고령 소농이면서 빈곤 농가로 분류된 농가의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논벼가 5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과수(19.8%), 채소(7.9%) 농가였음.

19) 2020년 논벼 농가소득은 2019년에 지급하지 않은 변동직불금의 지급, 코로나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크게 상승함(임소영 외, 2021).

20) 청장년 중대농은 다른 유형보다 소득이 높음에도 빈곤율이 높았음. 이는 유형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본 고의 유형별 소득불평등도 분석 결과와 일관됨.

0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하였음.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11.4%, 3.2% 증가하여 농가 소득 증가의 주요인으로 기여한 반면, 농업소득은 7.4%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3~2017년(연평균 2.6% 증가)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음.
- 고령농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소농이 2022년 처음으로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63.5%)하여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하였음. 이에 반해 청장년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청장년 소농 비율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18.0%로 10년 사이에 12.6%p 하락했음. 청장년 중대농의 경우 동기간 13.3%에서 6.2%로 7.1%p 하락했음.
-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상이하였음. 청장년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이,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 소득, 고령 소농은 이전소득,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13~2017년 패널 대비 2018~2022년 패널에서 모든 유형의 농가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청장년 농가보다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견인한 소득원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었음.
- 2018~2022년 패널은 과거 대비 소득 불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음. 역진적 단가로 설계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각종 보조금 등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농가 유형 내 보다는 유형 간 불평등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이었음. 청장년 중대농에서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는 후계농과 창업농의 영농 기반 유무 차이로 판단되며,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임.
- 농가 유형별로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하였음. 특히 청장년 중대농과 고령 중대농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대농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의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 2013~2017 패널과 2017~2022 패널과 비교 시 평균 농업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럼에도 2022년 농업소득의 큰 폭의 하락은 농업소득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농업 경영위험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2022년 농업소득 감소의 역대 최대폭 발생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적 충격에 기인한 경영비 상승에서 비롯되었음. 따라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에 더해 경영비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영농체계 구축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구되어야 함.
- 과거 원천별 농가소득 비중은 농외소득,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순이었으나, 2019년부터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소득 비중을 넘어섰음. 이전소득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농가 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농업소득의 성장세가 더딘 것도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음. 농업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근원 지표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청장년 소농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율 9.2%로 성장세가 가장 컸으며 이에 힘입어 2022년 처음으로 청장년 소농이 고령농 중대농의 농가소득을 추월했음. 청장년 소농이 향후 중대농으로 진입하여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자본 축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외소득 활동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2022년 청장년 소농 농외소득 3,953만 원). 따라서 청장년 소농의 안정적인 자본 축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검토가 필요함.
-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농가소득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농가소득 불평등도도 청장년 중대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상대적 빈곤율도 청장년 중대농에서 크게 상승하였음.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생계를 유지가 중요함. 따라서 '농업 선진국의 위험관리 교육 프로그램(예를 들어, 미국의 RMA²¹)에서 운영하는 Risk Management Education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65세 농가 비율이 2018년 63%에서 2022년 76%까지 증가하였음. 농가 고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영농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 농업 생산 분야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체로 70세 이후 영농 규모 축소, 75세 이후 영농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부터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과 청년농, 귀농 간의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1) 미국 농무성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작물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위험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역진적 단가 체계로 설계되어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이바지했음. 다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현재까지는 공익을 창출하는 선택직불제의 농업인 참여가 미진한 편임(김태훈 외, 2021; 김태훈 외, 2023).²²⁾ 따라서 현재 기본직불제 중심의 구조에서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공익직불 설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22) 예를 들어, 현행 선택직불제의 하나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하므로 비인증 농가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김태훈 외, 2023). 또한 경관보전직불제는 첫 시행 이후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약 1만 8,000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음(김태훈 외, 2021).



참고문헌

-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임영아·임준혁(2021),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김종인·유찬희·임영아·승준호·민선형·김현정·임준혁(2023),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석다솜·이상래·김윤호(2022),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개성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5): 515-521, 한국산학기술학회.
-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서홍석·김태후(2018),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7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성재·이우진(2017), “사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임병인·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임소영·김태후·민선형(2021),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허등용(2018), “사플리 값을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 《농촌경제》 41(4): 1-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